

사회

목포 룬살롱 '성매매 장부' 파문

공무원·기업임원 등 400여명 명단

경찰, 200여명 소환 두달째 조사

목포지역의 한 룬살롱에서 마담이 작성한 속칭 '2차 장부'(사진)가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술값 내역과 속칭 '2차' 성매매를 나간 사람 등을 빠꼼히 적은 이 장부에는 대기업 종역과 공무원, 건설회사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목포경찰청은 14일 목포시 옥암동 H 룬살롱이 접대부를 고용해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H 룬살롱 마담 임모(여·38)씨가 작성한 이 장부에는 고객 400여명의 술값 내역과 '2차'를 나간 성매매 여성

의 이름, 성매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이 장부에는 목포권 대기업 종역과 공무원, 건설회사 관계자 등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차'를 나갔던 룬살롱 여종업원과 손님 간의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장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이 룬살롱의 성매매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가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비밀 장부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장부 입수 이후 두 달 동안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당초 이 장부에는 440명의 명단이 적혀있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20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200여명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형사와 직원 대부분을 이 사건에 투입했지만, 성매매 여부를 가리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성매매가 주로 술집 인근의 모텔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성매매 여성과 구매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 형사와 사무실은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경찰관 대부분이 다른 사건은 업무도 못내고 대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 관련자를 소환해 성매매 여부를 밝히는 데 전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이후 목포지역은 연루자에 대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등 '2차 장부'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다고 무조건 성매매 수자로 단정할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동원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건물 철거작업 30대

12m 아래 추락 숨져

14일 오후 1시50분께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옛 농협 정미소에서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철거업체 직원 김모(35)씨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이날 동료와 건물 슬레이트 지붕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골프연습장 대표 차량서

티칭프로가 80차례 절도

광주서부경찰청은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연습장 대표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골프 티칭프로 김모(4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골프연습장에 주차된 연습장 대표 정모(47)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14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김씨는 정씨의 차량 열쇠를 훔친 뒤 돈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원하시죠” 14일 오전 광주신세계 백화점 직원들이 서구 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희망동네 만들기 봉사활동'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드리고 있다. 한가위를 앞두고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방 진료와 머리손질 등도 곁들여졌다.

템스 성적표·졸업증명서 위조

인쇄업자 등 4명 검거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템스(TEPS) 인증서 및 토익(TOEIC) 성적표 등을 돈을 받고 위조해 준 인쇄업자와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인쇄업자 채모(51)씨와 의뢰인 송모(31)씨 등 4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6년 6월께 서울시 중구 예관동 자신의 인쇄소에서 송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499점짜리 TEPS 성적표를 788점으로 위조해 주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건당 100만~15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받고 각종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뢰인 안모(40)씨는 자신의 제약회사에서 영어능력 성적표 제출을

요구하자 동리의 토의 성적표를 위조했으며, 왕모(46)씨는 모 건설사 취업을 위해 경북 경산시 모 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 제작 혐의로 입건된 채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조원본 파일을 발견, 위조 행각을 밝혀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고교생 농산물 절도단

참깨 등 3000만원 어치 훔친 8명 검거

애써 기른 농작물 수천만원어치를 훔쳐 농심을 멍들게 한 못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청은 14일 새벽 시간대 농가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농산물을 훔친 나주 모 고교 손모(17·2년)군 등 10대 8명을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군 등은 지난 달 20일 새벽 5시께 무안군 해제면 한 농가에 들어가 참깨와 양파 등 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

치는 등 9차례에 걸쳐 30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손군 등은 태풍과 장마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안군 해제면과 현경면 일대에서 농산물 절도가 잇따라자 동일 전과자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여 손군 등의 자백을 받아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농촌지역 빈집 털이 20여차례 금품 훔쳐

광주서부경찰청은 14일 농촌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문모(2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0분께 영광군 군남면 배모(5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최

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약 8년 전까지 영광에 살았던 문씨는 농민들이 대문을 잠그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간다는 점을 노리고 농촌지역 빈집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하수관거사업에도 '오현섭 비리'

거액 뇌물 정황 포착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오현섭(60·구속) 전 여수시장의 비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4일 경찰청과 여성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여수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뿌려졌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오현섭 비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의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여수시가 지난 2006년 발주한 하수관거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총 예산 400억원 가량이 투입돼 지난 3월 완공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경은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비롯, '이순신광장 사업', '웅천생태터널 사업', '인공해수욕장 사업' 등 오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각종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일당제 택시' 묵인 '뒷돈' 받은 노조 간부 징역형

'일당제 택시' 등 회사의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노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부(부장관사 정창호)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H택시 노조위원장 겸 전국운수노조 간부 김모(46)씨에 대한 항

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복리를 위해 회사경영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 운영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함께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squeeze@kwangju.co.kr

나원침 (8120) 김종두



엔진과열로 버스 화재

화물차 치어 2명 사망

14일 오후 1시께 장성을 단거리 못재 정에서 광주에서 장성으로 가던 시외버스(운전자 서모씨·46)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장성군 신희리 만남의 광장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유모(53)씨의 5t 화물차가 노면 보수작업을 하던 인부를 치어 2명이 숨졌다.

여학생들에 음란사진 상습 전송

성년남자 41명 구속

○광주서부경찰청은 14일 여학생들에게 음란사진을 상습적으로 보낸 강모(41·인천시 서구)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뒤 장모(11)양에게 전송하는 등 한 달여 간 초·중학생 35명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

○강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는데,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결과 300여회에 걸쳐 영상 전송 사실을 확인.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우전해수욕장 매일 운행

슬로시티 승도

전라남도 신안군 KTX 한국철도공사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승도(엘도라도리조트)

서틀버스 운행 (최신형 관광버스)

● 당일서틀: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승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동시 3천원 추가
상 품	요 금	
서틀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20,000원	
서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20,000원	
서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	

● 1박2일 엘도라도 리조트 숙박 116,000원(주중) 15평 1인요금 ●
● 1박2일 엘도라도 리조트 숙박 144,000원(주중) 26평 1인요금 ●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 김영면입학원 227-8088